



[해설]
위기의 유동대기업
돌파구는
'지역 랜드마크'
03



Economy

코스피 1988.53 (+22.84)	코스닥 629.31 (+9.29)
금리 (국고채 3년) 1.24 (+0.01)	환율 (원-달러) 1206.20 (-7.40) (4일)

M&A 댄 특허권 등 가치가 30%... 장부엔 불과 4% 뿐

무형자산 가치 반영 못하는 現기준 회계무용론 대두

기업의 공정가치와 자산평가는 회계부문과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제다. 금융당국과 외부감사 기업, 회계법인 모두 회계 이슈에 민감하다. 올해 회계업계와 외감 기업에선 무형자산의 인식과 보고방식 변화, 기업의 질의회신제도 강화 등의 회계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사후 규제에서 사전적 규제로 회계처리 지침을 바꾼 것도 이슈 가운데 하나다.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주요 회계 이슈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2019 회계이슈

(上) '무형자산'의 기준과 인식

작년 상장사 96% 무형자산 보고
총자산 대비 비중 4% 수준 불과
시가총액-장부가치 괴리 발생
해외 투자유치도 평가절하 우려
가치 제대로 반영된 기준 필요

4차산업혁명 시대는 기업의 가치평가 때 건물, 토지 등 유형자산보다 기술력,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여전히 유형자산 평가에 치중해 있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회계무용론'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회계업계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핵심 무형자산을 정의할 기준을 만들고, 무형자산에 대한 별도 보고서를 공시토록 하자는 제안이다.

◆ 상장사, 무형자산은 4%뿐?

4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상장사의 96.2%가 무형자산을 보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총자산 대비 무형자산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4%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상장사가 무형자산을 적게 보유하고 있다는 무형자산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결과라는 게 회계 업계 의견이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M&A(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업의 무형자산을 평가한 결과 평균적으로 총 자산의 30%가 무형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런데도 장부상 무형자산 비중은 4% 수준이란 것은 회계가 무형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가총액과 장부가치 간 괴리는 벌어지고 있다. 기업 시총의 근거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코스피 시총 상위사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Market-to-Book Ratio)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0.03, SK하이닉스는 1.04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 6.31, CJE&M은 0.67 수준이었다.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이 1보다 낮다는 것은 장부가치만큼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장부가치의 시가 설명력이 떨어지면 누가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냐"며 "현행 재무제표는 2018년 기업을 1900년대 틀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핵심 무형자산' 기준 만들어야

이미 해외에서는 IAS38(무형자산) 원가 기준 모형을 정립하고 내부창출 무형자산도 인정(AASB·호주 회계기준 위원회)하고, 직원 교육비, 브랜드 광고비 등을 비용이 아닌 미래 무형요소로 정의해 별도로 공시(FRC·영국 재무보고위원회)하는 등의 무형자산을 회계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회계업계에서도 무형자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형자산의 저평가가 지속되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공개(IPO), 투자 유치 등에 나서는 경우 평가 절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계업계가 강조하는 것은 기업가치 창출 동인이 되는 '핵심 무형요소'를 식별하는 것이다. (3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시내 롯데호텔에서 "한-미얀마,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서 산업단지 기공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기 세아 회장, 변창흠 LH공사 사장, 문 대통령, 미얀마 민세 부통령, 한겨레 건설부 장관, 표민태인 양곤 주지사. /연합뉴스

"미얀마 젓줄 '에야와디강' 기적 韓과 함께"

韓-미얀마 경제협력 산단 찾은 文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네피도에서 양곤으로 이동해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양곤 롯데호텔)'에 참석,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측 983개사(주관 1, 대기업 14,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54, 기관 및 단체 14) 200여명의 경제사절단이, 미얀마 측 민세 부통령을 비롯한 한 부처장관 및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측 주요참석기업으로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그룹·LG상사·포스코인터내셔널·대한항공·SM그룹 내 관계자들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

사는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에 대한 양국기업 및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게 여권 측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 산업단지 및 비즈니스 포럼 연설 때 "미얀마 경제수도인 양곤 인근에 섬유·봉제·건설·정보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산업 인프라를 갖춘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게 됐다.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맺어진 뜻 깊은 결실"이라며 "미얀마와 대한민국이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미얀마경제의 힘찬 도약에 한국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운을 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 산업단지 출

범을 위해 노력해주신 미얀마 건설부-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미얀마는 중국·인도·아세안 34억명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심지다. 5300만명의 인구와 30세 미만 젊은층이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역동적인 나라"라면서 "저는 오늘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처럼 '미얀마의 젓줄-에야와디강의 기적'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미얀마는 2011년 민주화 및 경제개방 후 매년 6~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3면에 계속)

/미얀마=우승준 기자 dn1114@

내년 바이오헬스 R&D예산 16% 증액

정부, 바이오헬스 혁신 본격화

2년내 2만명 규모 빅데이터 구축
데이터 중심병원 5곳 지정·운영

정부가 내년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주요 사업 예산을 16% 증액해 2만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혁신 전략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100만명 규모 국가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를 세계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 추진현황 및 계획 ▲규제개선 로

드맵 수립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우선 데이터 기반(플랫폼)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2020년 정부예산안 중 바이오헬스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에 올해보다 16% 늘어난 1조1500억원을 편성했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은 우선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2만 명 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중에는 2022년 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신청할 계획이다.

또 단일 병원 단위로 임상 빅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은 내년 5개 병원을 지정·운영하고, 4대 공공기관 빅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도 9월 중 개통될 예정이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개발에 938억 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15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주요 신규사업에 착수한다. 또 국가신약개발(2021~2030년, 3조5000억원), 재생의료기술개발(2021~2030년, 1조1000억원) 등 대형 R&D 예비타당성조사도 진행 중이다.

바이오베터(바이오 개량신약)에 대한 세액공제 신규 적용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지난달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생의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장기추적조사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약,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아일랜드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

기업명	시가총액(백만원)	Market-to-Book Ratio
삼성전자	262,876,300	0.03
SK하이닉스	41,382,109	1.04
셀트리온	27,724,070	16.17
삼성바이오로직스	25,572,773	6.18
현대자동차	24,214,125	0.71
LG화학	23,922,154	1.86
한국전력공사	21,249,011	0.39
포스코	19,440,275	0.48
SK텔레콤	19,368,919	1.99
신한금융지주	18,637,777	0.9